



전주 약령시 제전서 선빈 국산녹용

— 본회 이철수 감사 참가, 국산녹용 우수성 알리 —

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후원한 전주약령시 제전이 지난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 조선태조 이성계 영정이 모셔있는 전주 경기전(慶基殿)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제전에는 본회 이철수 감사(이철수사슴농장 대표)가 참가, 국산녹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녹용 및 증탕을 전시, 판매했다.

총 4백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털어 이번 제전에 참석한 이철수 감사는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제전을 찾은 일반 소비자에게도 알리고 더불어 제전에 같이 참가한 한의원 및 약업사에게도 홍보키위해 참석했다”고 밝히며 “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인 판로개척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철수 감사는 이번 제전에 참여키 위해 홍보 팸플릿 3,000부를 제작,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대형 냉동고를 준비, 국산 전지 생녹용을 전시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국산 생녹용을 전시, 판매하는 한편 녹용탕 시음행사를 제전 기간 동안 실시, 소비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짧은 역사를 갖고있는 전주 약령시 제전임에도 불구하고 국산녹용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이철수 감사는 일찍이 2회 제전때 사고(?)를 치기도 했다. 약령시 제전에서 약업사들이 외산녹용을 판매하는 것에 강한 반발을 제기한 것. 분을 못이긴 이철수 감사는 부스 임대료는 고스란히 물고 제전 기간 내내 문을 열지 않았다. 더불어 ‘근조(謹弔) 전주약령시 제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겠다며 주최측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덕분에 지난 3회 대회때는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초청을 받지도 못했다.

“전주 약령시 제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껏 홍보, 판매하는 제품이 외산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지난날을 회고한 이철수 감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전 참여로 국산녹용의 자부심을 지켜갈 예정에 있다. **이철수**

